

출제 개요

2015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Ⅱ 논술고사의 주제는 “존엄성의 관점에서 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이다.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저널, 영어 지문,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제시문 [가]는 힌두 사회의 지참금 관습으로 맺어진 친족집단들 간의 불평등 관계가 인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는 눈 색깔로 학생들을 구별하여 차별함으로써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차별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고한다. 제시문 [라]는 남녀 간 역할의 분화와 불평등 구조가 현대 가족제도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 [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과 생활만족도 저하를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존엄성을 갖춘 삶을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 I]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기능론적’ 관점은 차별과 불평등이 전체 사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논제 II]는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 주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위가 가해지거나, 특정한 결함 때문에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관습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을 객체화/도구화하거나 신체적 결함을 전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III]은 경영·경제·사회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를 인문계 고교 수준의 수리 지식(부등식의 영역과 최댓값, 평균치 구하기 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타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최댓값을 이루는 최적해를 제약조건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의 기울기와 목적함수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추론할 줄 아는 능력을 추가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사회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를 정확히 이해하며, 사회 현상을 수식이나 도식을 활용해 추상화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계열 전공을 선택하려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최상훈 외(2011),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p. 31.

정채성(2007), “힌두 지참금 관습의 구조적 성격: 간야단 이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12-1, p. 1.

제시문 [나]: 윌리엄 피터스 지음, 김희경 옮김(2012), 『푸른 눈, 갈색 눈』, 한겨레출판, pp. 21~26.

제시문 [다]: 구정화 외(2011),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p. 157.

제시문 [라]: Linda L. Lindsey(2011), *Gender Roles: A Sociological Perspective*, Pearson, pp. 5~6.

제시문 [마]: 배순훈(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 정부기업의 본연 역할 하는 게 ‘창조경제’”, 제4회 KERI 포럼.

제시문 [바]: 페터 비에리 지음, 문향심 옮김(2014), 『삶의 격』, 은행나무, pp. 13~15.

<참고> 영어 제시문 [라] 국문 번역(요약)

산업화 이전의 사회질서는 남녀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유지되었다. 남성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냥을 했으며, 여성은 집 근처에서 소규모 농사와 육아를 담당했다. 이와 같은 남녀 간의 역할 분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은 식량의 확보와 안전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성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이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구분되고 상호 보완적일 때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된다. 남편이 생계를 책임질 때 가족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며, 아내가 가사를 책임짐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가 강화된다. 만약 남녀 간 역할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면 가족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